

## 옥은 깎을수록 고와지고 글은 다듬을수록 매끄러워진다

강 은 주\*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대심문관’ 부분을 읽고 거기에 나타난 인간관과 민주주의를 연결시켜 논하라. 분량은 서너 장 이상.’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 나온 리포트 과제를 앞에 두고 나는 한없이 막막한 느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고등학생 때 오지선다형의 ‘달달 외워서 잘 찍는’ 공부를 할 때는 어서 빨리 대학생이 되어서 내 주장을 독창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리포트를 쓰고 싶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리포트를 쓰는 대학생의 모습은 어딘지 유식하고 멋있어 보였다. 게다가 <논스톱>에 나오는 대학생들은 금방 금방 수월하게 리포트를 잘도 써냈다. 그러나 현실과 상상은 달랐다. 리포트 비슷한 글이라고는 대학 입학 전에 학원 다니면서 1800자 논술 몇 편 써 본 것이 고작이던 나에게 리포트 쓰기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개요를 짜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컴퓨터 앞에서 무수한 한숨을 쉰 다음에야 간신히 장수를 채웠다. 그렇게 쓴 글을 퇴고를 하려고 다시 읽어 보았을 때 나는 쓰기 전보다 더한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도저

히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읽으면 나 자신이 스스로 뿌듯하게 여겨질 만큼 잘 쓴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이 못 쓴 것 같았다. 못 쓴 것은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니면 아예 다시 써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동기나 선배들에게 글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선배들은 아직 서먹한데다가 전공 공부나 동아리 활동으로 바빠 보였고 동기들은 객관적이고 꼼꼼한 평은 못 해줄 것 같았다. 누가 자기 글도 아닌데 시간 들여가며 자세하게 보아 주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아야 할 사이에 ‘너 이 부분은 이상하니까 고쳐라’라고 혹평을 해 주겠는가. 결국 리포트를 부여안고 껑꽁 대다가 찾은 곳이 학내 광고를 통해 알고 있던 글쓰기 교실이었다. 상담 이를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쭈뼛쭈뼛 죄지은 사람처럼 글쓰기교실에 들어갔다. 내 글을 남이 보아준다고 하니 긴장이 되었다. 잠시 후 다행히도 아무도 없는 상담실에서 상담 조교님과 마주 앉아 상담을 했다. 내 리포트에는 빨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인문교육계 재학 중

간 펜으로 여기저기 교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간 교정은 상담이 끝날 때쯤에는 거의 단락마다 표시되어 있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고 편안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글의 여기저기를 보아 주셨다. 상담을 받다 보니까 내 글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아는 것처럼 글을 쓰다 보니 논리가 엉킨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상담 이후로도 여러 번 상담을 받을 때 상담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네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봐라”,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고 물으실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너무 간략하게 대답을 할 때는 리포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내 주장에 충분한 논거가 없거나 논리의 이어짐이 끈끈하지 못할 때였다. 쓰기 전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쓰는데 쓰다 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척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은 글을 쓰기 전에는 나 스스로에게 “네 의견을 설명해 봐라”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고 묻고 대답이 솔솔 나올 때 글을 쓰고 머뭇거리는 대답이 나오면 더 공부를 하고 쓰려고 노력한다.

내 두 번째 문제는 글의 구성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논리가 엉키다 보니 구성이 이상해진 것이다. 중요한 단락인데도 쓸 말이 별로 없으면 짧게 써버리고 별로 중요한 단락이 아닌데도 알고 있는 것 이 많으면 그것을 다 쏟아 봇느라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곤 했다. 그리고 내용상 소제목 하

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 버리고 나눠야 할 부분은 붙여 버리는 일이 있었다. 단락의 순서도 가끔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다 보니 글의 흐름이 강물 흐르듯 흐르지 못하고 탁탁 걸렸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구성을 여기저기 고쳐 주셨다. 집에 와서 상담 받은 대로 수정을 했더니 글이 한결 부드럽게 흘러갔다. 나는 리포트를 쓸 때 ‘자판에 손가락 가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라도 한 번 개요를 짜고 써야 할 문장들을 생각하고 나서 쓰는 편이다. 상담을 받은 이후로는 글을 쓰기 전에 개요 짜는 단계에서 구성을 미리 생각하고 글을 쓰고 난 후에도 구성을 신경 써서 보게 되었다.

원래 성격이 덜렁대서 그런지 글을 쓰고 나면 오타가 조금 나는 편이었다. 매번 상담을 받다가 오타를 발견하곤 했다.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도 어울리지 않는 접속사를 써서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었다. 자꾸 오자나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눈에 걸려서 이제는 글을 쓰고 나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보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미숙 하긴 하다. 잘 쓴 레포트들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한다.) 사회과학 글쓰기라는 과목에서 자기가 쓴 글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다시 보고 고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오자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문장간의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은 걸려졌다. 사람이 있어서 소리 내서 읽지 못 할 때는 입술만 달싹이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첫 번째 상담을 받을 때는 내가 글을 너무 못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러나 상담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제는 부끄럽다는 느낌은 많이 가셨다. ‘이렇게 상담 받고 고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느는 거지 뭐. 누군들 처음부터 잘 썼겠어?’ 하고 생각하고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글쓰기 상담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상담 이를 전에 미리 글을 써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주변에 종종 마감 하루 전에 밤을 새 가며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글을 쓰면 일단은 마음이 급해서 여유 있게 글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는 퇴고할 시간이 부족해서 좋은 글이 나오기 힘들다. 나는 글쓰기에 자신도 없고 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에 3월부터 글 쓰기 상담을 애용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글을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써 두는 것이 벌릇이 되었다. 거기다가 보통은 한 번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상담을 받고 수정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받고 수정해서 예약하고 다시 상담 받고 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리포트를 써야 했고 자료 조사는 그보다 더 일찍 해야 했다. 그 덕

에 도서관에서 내가 찾는 자료가 선점 당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자료 조사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다. 조사를 여유 있게 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쓰는’ 일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수정본을 한 번 더 상담 받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였다. 글쓰기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 상담 선생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시지는 않은 부분을 다른 선생님께서는 자세히 보아 주셨다. 쓰고 나서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상담 선생님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대마다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만 계셔서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좋은 리포트는 천재의 일필휘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옥이 깎고 다듬을수록 귀해지는 것처럼. 아직 좋은 리포트를 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담 받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분명 전학기 때보다는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글쓰기교실에서 선정하는 ‘우수 리포트’ 목록에 내 리포트가 실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